

순결·평화·지혜로움의 상징 토끼... 이상향에 사는 동물

#우리 삶 속의 토끼-성장과 풍요 상징

2011년은 신묘년 토끼의 해다. 토끼는 십이지 중 묘(卯)이다. 음력으로는 2월, 시간으로는 오전 5-7시 사이를 가리킨다. 음력 2월은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고 묘시는 농부들이 논밭으로 나가는 시간으로 토끼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한다.

토끼는 작고 귀여운 생김새와 풍긋 세운 귀 모양으로 선하면서도 약한 이미지일과 동시에 천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본능으로 인해 피가 많고 영리한 동물로 인식됐다.

우리 조상들은 토끼가 주는 순결함과 평화로움의 이미지 때문에 일찍이 토끼를 이상향에 사는 동물로 그렸다. 옛 사람들은 달을 늘 이상세계로 생각했다. 그 이상향에는 계수나무와 함께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상상했다.

상묘일(上卯日)은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맞는 토끼날이다. 이날을 특히 '뫓날구기'라고 하여 남의 여자가 자기 집에 와서 오줌을 누면 좋지 않다고 해 여자들은 바깥나들이를 삼가 했으며, 아침에 남자가 대문을 열어야 1년 내내 집안이 편안하다고 믿었다. 토끼날 실을 짜거나 옷을 지으면 무병장수한다고도 했다.

토끼꿈은 두 가지로 해몽된다. 토끼는 앞발이 짧아서 오르막을 잘 올라간다. 그래서 토끼꿈은 승진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끼의 입은 윗입술이 세로로 찢어져 있어서 태몽으로 꾸면 인척이 자식을 낳는다고 했다. 악몽을 꾸었을 때는 소금을 대문간에 집어넣거나 문밖에다 세 번 뿌린다.

토끼는 민담만큼이나 속담에도 많이 등장한다. 토끼잡이판 토끼처럼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무데서나 잠깐 눈을 붙이고 자는 잠을 말한다.

'토끼가 재 방귀에 놀란다'는 속담도 있다. 이는 '남몰래 저지른 일이 염려되어 스스로 겁을 먹고 대수롭지 아니한 것에도 놀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는 말도 있다. 토끼를 다 잡아먹은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중국의 고사성이다. 즉 필요할 때는 소중한 여가다가도 그 일이 끝나면 천대하거나 없애버린다는 뜻이다.

우리의 전통 민속화에서 해(日)는 곧잘 발이 셋 달린 까마귀로 표현되고, 달(月)은 토끼로 표현된다. 토끼는 달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암토끼는 수컷이 없어도 달과 교합해 새끼를 낳는다고 했다. 토끼가 어두운 밤 달나라에서 방아 찧을 수 있는 것은 눈이 그만큼 밝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끼눈을 명시(明視)라고 했다.

토끼는 깨끗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인해 특히 공예 품에 많이 그려지고 새겨졌다. 국보 제95호 청자칠보 투각향로의 받침도 토끼상이고, 연적으로도 토끼상을 많이 쓰고 있다.

토끼이야기

■ '달로 간 토끼' -〈본생경〉

토끼하면 잔꾀를 부리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반면에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자타카)〉에서는 자신의 몸을 노인에게 바치려하는 토끼이야기를 통해 토끼를 보살도의 상징으로 표현한다.

옛날 베나레스 근처에 여우, 원숭이, 토끼가 살고 있었다. 새 동물은 우정이 지극히 두터워 서로 사랑하기를 제 곱같이 여겼다. 석제 환인은 이 모양을 보고 크게 감동해 이 가운데 진실로 보살도를 닦고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시험하고자 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노인은 세 친구에게 배가고파 견딜 수 없으니 먹을 것을 구해달라고 한다. 여우는 물가에서 생선을, 원숭이는 숲에서 과일을 구해왔으나 토끼는 아무것도 구해오지 않았다.

노인은 토끼에게 "어찌하여 한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냐"고 묻자, 토끼는 여우와 원숭이에게 장작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토끼는 구해온 나무에 불을 놓고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는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원컨대 이 몸을 노인께 공양하고 후세 성불을 기약하고자 합니다"며 타오르는 불 속으로 뛰어어들었다. 그때 노인은 제석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 타다 남은 토끼를 찢어미 속에서 꺼내놓고 탄식했다.

"실로 나는 너희들이 보살행도를 시험하고자 왔다. 그러나 지금 토끼의 소신공양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 이와 같이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는 토끼의 자취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차마 할 수 없다. 내 이제 토끼의 모습을 달 속에 붙여 후세에 본이 되게 하리라"하고 토끼의 모습을 달 속에 그려 넣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설하고 그때의 토끼가 바로 오늘의 나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시작된 달토끼 전설로도 이어진다. 굶주린 배를 채워준 토끼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부처님이 토끼의 영혼을 달나라



십이지신상의 토끼는 지혜와 무병장수의 상징이다.

에 보냈고, 토끼는 불로초를 만들기 위해 절구질을 하게 된 것이다.

■ '사자를 이긴 토끼의 지혜' -〈불본집행경〉

어느 평화로운 숲에 사자 한 마리가 찾아왔다. 사자는 숲 속을 돌아다니며 숨어있는 동물들을 차례로 찾아내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버렸다. 동물들은 몰래 모여 사후대책을 강구했으나 아무리 궁리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한 가

고 했다. 토끼는 우물가로 사자를 인도했다. 사자가 높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자기와 똑같은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흥"하고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도 따라서 똑같이 "어흥"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하여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요동을 하니 물 속의 사자도 똑같이 소리치며 야단을 했다. 화가 난 사자는 자기와 모습을 보다가 그와 싸우려고 그만 물 속으로 뛰어어들었다. 그러나

'본생경' 소신공양, '불본집행경' '토끼전' 지혜 신묘년 토끼 기운으로 승진과 무병장수를...

지 생각이 떠올랐다. 매일 한 마리씩 사자에게 자청해 찾아가기로 한 것.

어느 날 토끼가 사자에게 갈 차례가 됐다. 사자에게 가는 동안 온갖 살 공리를 한 토끼는 도중에 우물 옆을 지나가다 그 속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자에게 간 토끼는 "임금님과 똑같이 생긴 사자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에 내가 임금님께 간다고 했더니 화를 내며 '이 산중의 왕은 나인데 나 이외에 또 누가 있다는 말이냐! 그놈의 혼쭐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고 말했다.

화가난 사자는 당장 토끼에게 그곳으로 안내하라

사자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육중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토끼야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이 소리를 남기고 사자는 죽고 말았다.

■ '설화 속 토끼 이야기' -〈토끼전〉

바다에 사는 용왕이 몸쓸 병에 걸렸다. 토끼의 간이 명약이라 해, 용왕은 만조백관을 불러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그 끝에 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물로 나온다.

자라는 감언이설로 토끼를 유혹해 이윽고 용궁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토끼는 물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속았으며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꽤 많은 토끼는 자기의 간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서 평소엔 늘 숨겨놓고 다닌다는 거짓말로 위기에 처 벗어나 물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대표적 판소리계 고전인 〈토끼전〉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도설화(龜兎設話)를 제재로 한 우화소설이다.

구도설화의 근원이 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김춘추는 백제에 복수하려고 고구려로 정병갔다가 오히려 고구려 옛 땅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붙잡히는 몸이 된다.

그때 김춘추는 고구려를 탈출하기 위해 고구려 신하 선도해(先道解)에게 술대접을 했다. 구도설화는 그때 술 취한 선도해가 김춘추에게 들려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다. 김춘추는 거기서 토끼의 지혜를 얻어 고구려를 탈출할 수 있었다.

'구도지설'은 그후 '토끼전' '별주부전' 등의 제목을 달고 세상으로 퍼진다. 판소리에서는 '수궁가'로 불린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기묘년 불교소사

- 535년: 범흥왕비, 영흥사 창건
- 595년: 5월 고구려 고승 혜자, 일본에 건너가 황태자 풍종의 스승이 됨
- 643년: 신라 자당, 당에서 돌아오면서 불사리 1백과 불정골, 불아(佛牙) 및 불소착 비라금점가사와 삼장 4백 여함을 가져옴. 기림사 창건
- 679년(신라 문무왕19년): 명랑(明朗)의 건으로 낭산(狼山)의 남쪽 신유림에 사천왕사 창건
- 751년: 대상 김대성이 불국사 및 석불사 창건
- 799년(신라 소성왕1년): 승려 범수, 당에 들어가 〈신역후분화염경 정관외소〉를 얻어 돌아옴
- 919년(신라 경명왕3년, 고려 태조2년) △신라, 사천왕사의 소상(소상)이 가진 활줄이 저절로 끊어지고 벽서(壁書)의 개가 짓으니 3일간 경을 강요해 기도 △태조, 범왕·자운·왕륜·내제석·사나·전선원·신흥·문주·원룡·지장 등 10사(寺)를 도내에 창건
- 1099년(고려 숙종6년): 요나라에서 숙량(肅郎)으로 하여금 대장경 및 〈제종소초〉 6900여 권을 보내옴.
- 1399년(조선 정종1년): 태상왕(太上王), 해인사 대장경 인출(印出)을 지시
- 1459년(세조5년): △원각조사 입적 △(월인석보)완성
- 1579년(선조12년): 〈선가귀감언해〉 조판 간행
- 1879년(고종 16년): △1월 본원사 부산별원, 한어학사(韓語學舍)설립 △2월 28일 귀주사(歸州寺)중수를 위해 내탕전(內帑錢) 3500지(紙)와 공명첩(空名帖) 500장 발급 △3월 석왕사 중수를 위해 공명첩 3백장 발급 △7월 12일 민해 한용운, 충남 흥선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출생 △8월 이동인, 박영효의 후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감 최초의 일본 유학생
- 1939년 △3월 16일: (재)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17회 평의원회 개최 △3월 23일: 중앙선원(선학원), 조선불교선종 제1회 정기대회 개최 △4월 7일: 총독부, 종교단체법 제정공포 1940년 4월 1일 시행 △4월 법어사 경성포교당,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 개칭 △7월 7일 중일전쟁 제2주년을 맞아 전국 각 사암·포교소·신도단체 등에서 무운장구기원제, 전불장병 위령제, 황군(皇軍)위문금 모금 등 실시 △7월 13일: 총독부, 고적발굴 10개년계획 발표 △10월 9일: 경북 5분산, 은해사 경내에 오산(五山)불교학교 설립인가 받음 △11월 2일: 부산사원연합회, 탁발보국대 조직 △12월 8일: (재)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조계학원으로 명칭 변경 신청. 1940년 2월 6일 변경인가
- 1963년: 대한불교청년회 성전 편찬위원회(우리말팔만대장경)간행. 9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
- 1975년: 정부 석가탄신일인 음력 4월 8일 공휴일로 제정. 8월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허가
- 1987년: 조계종 승려 746명 민주화 성명서 발표.

체계적 공부 지도

재가자 하안거 봄산철 정진대중 모집

삼매체험 수련회 · 단기출가

단식 · 참선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면역력 강화

청소년 · 대학생 · 일반
*수련회 : 5일
*단기출가 :
30일, 50일, 100일
· 2월 21일 ~ 25일
· 3월 25일 ~ 29일

- 물만 마시고도 당노병 · 고혈압 · 성인병 · 난치병을 퇴치 예방 가능
- 면역성 노화방지 · 아토피 · 생리관계 · 요요현상 없음
- 공부힘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어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음
- 장애에서 벗어나게 됨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번지
☎ 1644-5266,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네이버카페 [활인선원](#)